



<성명서>

또 다른 조직개편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2일 혁신추진단에서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 계획 시행’이라는 문서를 시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부산권역의 일부 영업국장을 임원급으로 선임하여 영업국 지사 망운용국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영업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권한을 보면 ▲영업국장에 임원급 선임·배치 ▲영업국 3급이하 직원 승진·임용권 부여 ▲권역내 2급이하 직원 정원조정·증원·전보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조정(RPU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권역내 3개 기관장 동일 장소 근무토록 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상·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은 2004년 2월 13일 사장과의 면담에서 2003년 조직개편은 100% 실패작이라고 평가하고 조직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 계획’은 과거 광역국 체제와 내용이 유사한 체제로 일부지역에만 도입하여 지역본부와의 충돌 및 위상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결국 회사는 조직개편전 광역국체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사실상 조직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조직을 더욱 기형화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조직의

완전한 원상복구를 시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회사는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조직개편문제에 대해 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한 혁신추진단이 구멍난 부분의 땀질만 일삼는 조직이라면 즉시 해체해야 마땅하다.

만약 위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일

KT노동조합

<위원장 메시지>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합니다.

조합원여러분!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후 약 2주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불이행이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쌓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은 경직되고 관성화 되어

갔습니다.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였습니다.

이제 조직의 면모를 일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지 노동자대회 불참의 책임을 개개인에 묻기보다는 경직되거나 관성화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마침 지방본부위원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위원장인 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조직 총화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실처장을 비롯한 중앙상집의 인선과 보직교체는 이러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흔히 노동조합의 힘은 단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과정상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따르는 것이 조직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노동조합은 외부의 압력이나 탄압이 있을 때 더욱 굳건해지는 반면 내부의 분란이 발생했을 때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본부 그리고 지부에 이르기까지 KT노동조합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실천하는 조직, 솔선수범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에 조합간부여러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12월 1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식

제8대 중앙본부 상집간부 인선

지재식위원장은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중앙본부 상집간부를 다음과 같이 인선했다.

- 자문위원 류춘용
- 정책기획실장 서리 최광수
- 조직처장 서리 조규상
- 교육선전실장 서리 허진
 - 법규 / 산업안전국장 백관기
 - 정책2국장 이정철
 - 정책3국장 장인태
 - 교육 / 국제 / 대외협력국장 김영삼
 - 선전 / 문화체육국장 강인석

4/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2004.12.31기준)

□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4. 12. 5 ~ 12. 15 (11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차수별(3차) 시행
 - 1차 : 12.6, 2차 : 12.13, 3차 : 12.17
- 퇴직발령 : 2004.12.31자

□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소속 기관장에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 의견서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 추천
- 각급 임용권자단위 퇴직 발령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정부의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원 회부안기로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방청투쟁 ·
IT연맹 국회 앞에서 압박용 집회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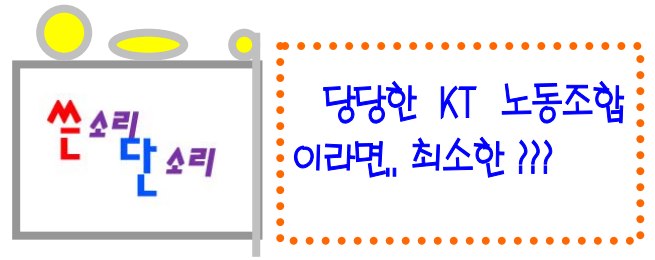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제정안을 29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2월6일과 7일 이틀간 공청회를 거친 뒤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며 정기국회 일정상 연내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상정된 27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12월1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관련 법안의 경우 실질심사를 하지 말고 공청회가 끝난 후 병합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비정규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법은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는 12월2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어 법안처리를 위해 8일과 9일 잇달아 본회의를 연 다음 올 정기국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12월1일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IT연맹 등 산하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연이은 집회를 여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집회 마무리 인사에서 "개악 법안은 연기되었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진정한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 입법화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노동조합 게시판 2004-11-28]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이라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바로 옆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매년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불안해 하는 협력업체라는 소속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은 최소 1년에서 10년 이상 함께 근무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더 험한 일들을 몇푼안되는 최저 임금 겨우 넘는 금액을 받기 위해 휴일 및 야간 수당도 없이 보너스도 없이 퇴직금도 없이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조합이 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협력업체 직원수가 만여명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면서 노동자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분 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파견직 내지는 별도로 협력업체라는 무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여러분도 내일 당장 비정규직 직원이 될수 있고 당신의 자식이 지금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 "기간제 노동 전업종 확산 ... 파견근로법 통과되면" 당신의 자식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그들과 똑같아 질수 밖에 없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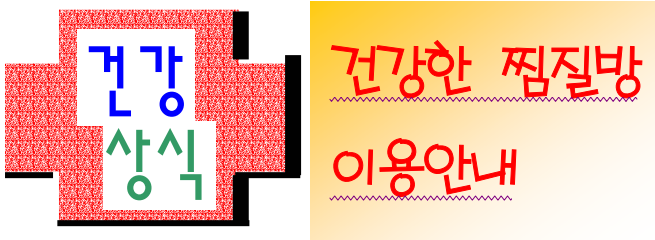
얼마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똑같

4 주간KTU

이 근무하던 KT정직원이 명퇴후 다들 어디로 가셨던가요. 돈 좀 모아놓으신 몇분 빼놓고는 다들 협력업체 이곳 저곳을 전전궁궁 하지 않던가요.

진정 당당한 노동 조합으로 노조의 "조합원" 이라면 자신들의 욕심때문에 싸우시기 이전에 최소한 "여의도"로 진출을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바로 옆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글을 올려 봅니다. 짧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길어 지네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4개 준다고 좋아라 하는 원수이가 되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분명 "노동자" 입니다



[출처:파란 건강상식]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질 때면 뜨끈한 아랫목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찜질방은 북적거린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도시락을 싸와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뜨거운 찜질방 안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연인들, 땀 흘리며 책을 읽는 학생, 배와 몸 구석구석에 비닐을 칭칭 감고 이를 악물고 땀을 빼는 아줌마 등 갖가지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찜질방의 효과와 올바른 이용법을 살펴본다.

◆찜질방, 효능있나?

전문의들에 따르면 적당한 찜질욕은 신진대

사를 촉진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근육조직을 부드럽게 해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 등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혈액이 맑아지면서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효능도 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30분 이상 땀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긴 시간 동안 찜질욕을 즐기기보다 5분 정도 이용 한 뒤 10분 정도 쉬어 주는 것이 좋다. 또 찜질욕을 끝낸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갑자기 찬 바람을 쐬는 것은 좋지 않다.

◆잘못 알고 있는 찜질방 상식

▷숙취에는 찜질방이 최고? 요즘은 회식을 마친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숙취를 해소하려고 찜질방을 찾는 것은 금물이다. 술을 마신 사람은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땀을 심하게 빼는 것은 위험하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찜질방처럼 강제적으로 땀을 내는 경우는 체지방 감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운동으로 뺀 땀은 몸 안에 축적된 납 등의 중금속 중 일부가 땀과 함께 배출되지만, 찜질방에서 흘린 땀은 수분과 미네랄, 칼륨 등만이 빠져나간다. 대신 운동 후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고 찜질욕을 즐기면 뭉친 근육과 결림 등이 풀어져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미용에 그만?

보통 목욕을 하고 난 뒤에는 피부가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곧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오히려 찜질욕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

하게 되고 고온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찜질욕 후에 감자나 오이로 팩을 해주면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넓어진 모공에도 좋다.

특히 찜질방에서 행해지는 좌욕이나 부황 등의 의료시술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

▷빈속은 위험, 배를 든든히 채운다? 물론 빈속에 하는 찜질욕도 위험하지만 과식 또한 금물이다. 찜질방에 오래 있다 보면 출출한 배를 달래려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찜질욕을 하게 되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특히 이뇨작용을 부추기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삼가는 것이 좋다. 대신 물은 자주 마시고 미역국은 미네랄과 철분을 제공해주므로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

◆건강한 찜질욕 5계명

1. 30분 마다 물을 한잔씩 마신다.
2. 5분정도 찜질욕 후 10분씩 휴식을 취해준다.
3. 찜질욕 후에는 피부 보습제를 꼭 발라준다.
4. 모발은 적신 후 수건으로 감싸고 찜질욕을 한다.
5. 가급적 개인수건을 사용한다.

◆체질별 찜질욕 요령

▷**소음인** = 반신욕이 좋으며, 10분 이상의 찜질욕은 금한다.

▷**소양인** = 냉온요법이 좋으며, 60도 이상의 찜질욕은 금한다.

▷**태음인** = 고온욕이 좋으며, 10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찜질욕은 금물이다.

▷**태양인** = 저온욕이 좋으며, 손.발이 뜨거워지면 찜질욕을 중단한다.

대추발한의원 홍성관 원장은 "찜질방이 다이어

트와 피부미용, 관절염 등에 좋다"는 속설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오히려 잘못 이용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자신의 체질에 맞는 찜질요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에 떠나는
문 화체험

애국선열의
흔이 깃들여
있는 곳

[출처: <http://www.jumalro.com/>]

서대문에서 신촌 쪽으로 향해있는 금화터널 진입 직전에 고가도로 위에서 아래쪽을 조망하게 되면 넓은 녹지 지역과 그 안의 붉은 건물들, 그리고 몇 개의 역사적인 조형물들이 눈에 띈다. 또한 독립문에서 북쪽의 무악재 고개 방면으로 가다 보면 도로 왼쪽에 회색의 높다란 담장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서대문 독립공원이다.

입구 오른쪽으로는 관리사무소와 옛날에 독립투사들의 수난의 장소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가 자리하고 왼쪽으로는 깨끗하고 울창한 푸르름을 자랑하는 녹지 공원인 독립공원, 그리고 민족의 기상과 독립의지의 표상으로 우뚝 서 한때 웅장했었던 독립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성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잠깐 스쳐 지나며 본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애국선열들을 생각하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함 따라 서대문형무소 자리를 역사적으로 보존하여 애국 선열들의 흔을 기리고 후손들에게는 민족 독립 운동과 고뇌의 현장을 산교육장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조성됐다. 서대문 독립공원의 규모는 약 3만 여 평으로 당초 형무소 터 약 9천 평과 사

형장은 서울시 사적 423호로 지정되었다. 독립 공원에서 가장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서대문형무소는 개설 당시에 감방 480평, 청사 및 부속건물 80평으로,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전국을 통틀어 총 8개 감옥에 총 수용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그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심한 고통과 옥고를 치른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를 후손들에 알리고 역사적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 1992년 독립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공원 내에는 이밖에도 독립문을 비롯해서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 옥사, 사형장, 지하독방, 독립관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인지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사형집행장은 관람객이 안을 쉽게 볼 수 있게 유리벽을 설치했고 다양한 사형집행도구도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사형장 앞에는 애국지사들의 흔적을 위로하는 순국선열위령탑이 세워져 있으며 상해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선생과 유관순열사, 도산 안창호선생, 만해 한용운선생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옛 그들의 외침이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른 장소라는 배경과 이들이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위치해 있어 그 역사적 의미는 더할나위 없이 더 크게만 느껴진다.

서대문독립공원에는 역사적인 문화유적들이 산재되어 있다. 독립문(사적 제32호), 영은문 주초(사적 제 33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사적 제324호), 순국선열추념 탑과 3.1독립선언기념탑 등이다. 또한 옛 구치소의 옥사와 담장, 망루, 류관순 누나가 투옥되었던 지하감옥과 사

형장 그리고 사형장 입구에서 사형수들이 붙들고 잠시 통곡했다는 미루나무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관람객들을 놀라게 한다. 1908년에 지어진 옥사는 일제가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가두었던 곳으로써 서울구치소가 의왕으로 이전될 당시 옥사는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모두 없애고 보존가치가 있는 제9·10·11·12·13옥사와 중앙사, 나병사, 보안과청사, 사형장, 담장, 망루는 보존하고 있다.

그 중 순국선열들이 투옥되었던 제10·11·12옥사와 사형장은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었으며 9사, 13사와 구여사(舊女舍) 및 지하감옥은 매몰되었던 것을 복원하였다. 구여사는 1920년 유관순이 고문을 참지 못해 숨진 곳으로 일명 유관순 굴이라고 하기도 한다.

순국선열추념탑은 윤봉길·이봉창·유관순·안중근 등 애국지사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고 3·1독립선언기념탑은 원래는 탑골공원에 자리했던 것인데 1992년 복원했다.

역사적인 문화유산 이외에도 이곳은 푸른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로써 각광 받고 있기도 하다. 인왕산과 남산을 잇는 도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안산의 무악 봉수대로 올라가는 산책코스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공원 전체에 펼쳐져 있는 잔디밭과 중간중간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고, 그 아래에 마련된 벤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또 잔디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장기와 바둑을 두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독립공원은 잔혹했던 일제의 만행과 나라 잃은 설움을 안은 슬픈 역사를 일깨워주는 역사교육장소로 역사관에서는 연중 연극과 전시회가 열리고 민족자존과 자주정신을 일깨우는 산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식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방본부소식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지방본부소식' content.

지부소식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지부소식' content.